

지역문화행사와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간 갈등에 관한 연구*

서 순 복**

It is necessary to research how to solve the conflict which could happen in the regional cultural festival in the time of religious pluralism. Therefor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n how citizens can accept and tolerate other religions in the regional culture festival. Its scope covers four kinds of local festival happening in Korean Southwest Area(so-called Jeon-Nam).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in the participation motive deriving from religious motive is not significant in the festivals. In a sense the festivals are characterized by local cultural and tourist festivals. Its meaning is that everybody can take part in the festivals without consideration of which religions the citizens have. In addition,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estival participants and their religious beliefs such as how long they attend a church, what duty they have in a church, whether they are baptized. In other words, in local festivals which is competitively propelled by Korean local authorities, religious tints are weakened and turned into local cultural and tourist festivals. This phenomenon is also observed in the festivals held by religious organization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no considering religious elements excessively in the organization of a festival in Korea, not to say that it is not necessary to worry about religious elements.

[Key Words: regional festival, regional cultural festival, religious belief, religious conflict, cultural and tourist festivals]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2003년도 선도연구자지원사업(KRF-2003-041-B20610)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soonbs78@hanmail.net).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축제와 행사¹⁾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중소규모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토착지역축제에 이르기까지 축제가 많아지고 있다(이동연, 2002).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역문화축제는 그 숫자 면에서 급증해서 1996년에 412개로 집계되던 축제의 숫자가 2004년에는 555개에 달한다(문화관광부, 2004; 2000; 교수신문, 2002.5.6).²⁾

그런데 대규모 축제가 늘면서 축제의 성격이 모호하고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유사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³⁾, 내용의 질적 하락, 유행에 편승한 과시성 축제, 불필요한 예산낭비, 행

1) 여기서 축제, 문화축제, 문화예술축제, 문화관광축제(문화관광부, 2001; 2000: 1999), 문화행사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축제와 이벤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참가여부와 관광상품화 가능 여부 면에서 구분할 수 있으나(채용식 외, 2001: 79), 여기서는 이벤트도 포괄하는 의미로 지역문화행사 내지 지역축제로 명명하고자 한다.

2) <표> 2004년 주요 시도별 지역축제의 분포 현황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서울	32	5.77	부산	44	7.93
대구	13	2.34	인천	11	1.98
광주	15	2.70	대전	8	1.44
울산	9	1.62	경기	60	10.81
강원	74	13.33	충북	35	6.31
충남	41	7.39	전북	32	5.77
전남	41	7.39	경북	56	10.09
경남	69	12.43	제주	15	2.70
			합계	555	100.00

자료: 문화관광부, 2004

3)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중복 문제는 심각하다. 소위 ‘베끼기 축제’, ‘물타기 축제’가 앞다퉈 열리다 보니 지역정체성 확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C도의 경우 22개 시군이 해마다 35개의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유사한 축제 아이템이 전어·꽃무릇·백련 등이다. K시 전어축제는 올해로 6번째를 맞았다. 하지만 B군이 올해부터 Y해수욕장 일대에서 전어축제를 열었다. 부대행사도 K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노래자랑, 사물놀이 일색이다. 지역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하나 없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Y군과 H군도 몇년째 경쟁적으로 꽃무릇 축제를 열고 있다. M군의 백련축제에 맞서 H군도 연 발을 조성하고 위탁시설까지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백련축제로 성과를 높이고 있는 무안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봄철 축제의 대표적 아이템인 철쭉·개나리도 이와 비슷하다(광주타임스, 2004. 10. 12). 또한 판소리축제와 경연대회의 경우도 난립이 심하다. M시 전국 판소리명창경연대회를 비롯해, B군 소리축제, J군 전통가무악대제전, H군 전국고수대회 등 판소리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광주타임스, 2000. 11. 13). 2002년 기준 C도의 축제는 총 31개이다(이장주, 2002: 240).

정력낭비, 개최시기의 집중, 연계관광체계와 해설체계의 미비, 주민동원의 진행방식, 단체장이거나 국회의원의 생색내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정강환, 1996: 68-69; 백승현, 2003: 20-24). 축제의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으로는 축제의 준비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임학순, 1996; 김창곤, 2000; 김선기, 2003; 김성현, 2005).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한 축제들이 즉흥적, 경쟁적으로 개최돼 지방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 28곳을 대상으로 지방축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처음 실시하기도 했다(연합신문, 2004.11.20). 그러나 지역문화행사는 경제성과 당선가능성 면에서 재선을 꿈꾸는 단체장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정홍익, 1996),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기도 한다(고숙희, 1999).

2. 종교적 성향의 지역축제에 대한 수용인지각 갈등 문제와 연구목적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지역문화행사가 지역주민의 상이한 종교신념에 따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남 함평군의 장승공원사업은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지역의 관광사업에 이바지한다는 자치단체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함평군 내부자료, 1999). 함평군 기독교연합회는 “특정 종교의 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장승과 같은 우상건립과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성경 교리상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진내리 일대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공원조성사업도 비슷한 경우이다(영광군 내부자료, 2000). 그리고 옛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는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삼성궁 등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은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MBC, 2000.8.22).

세계적으로 미국 9·11 테러나 최근 런던테러(2005년 7월)에서 보듯이 인종과 종교로 배경으로 한 갈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crash of civilization)에 관하여 그 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서 의문이 없지 않지만, 헌팅턴은 8개의 서로 다른 문명권이 유교·이슬람·기독교 3대 문명축으로 뭉쳐질 것으로 보면서, 기독교문명권과 비기독교문명권(유교·이슬람)이 각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헌팅턴, 1997; 김상일, 2001). 문명의 충돌은 현실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유익성이 의심되기도 하고 오히려 문명의 공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뮐러, 2000). 뮐러는 문명충돌이 아닌 문명의 공존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첫째, 문명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므로, 문명간의 공통영역은 넓어진다. 둘째, 오늘날 정보화는 문명간의 의존도와 상호

이해를 도와 줄 것이다. 셋째, 국가간에 세력균형이 이뤄져 가면서 문명에 대한 적대의식도 감소된다.

상술한 우리나라 지역문화자원개발과 관련된 사례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테러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지역주민의 상이한 종교신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자원개발에 있어 갈등이 노정된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강릉 단오제를 둘러싸고 특정 종교단체에서 시장의 단오제 제주(祭主)로서의 역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금식농성을 한 것 역시 지역축제에서 종교와 관련한 갈등현상으로 보인다(강원데일리안, 2005.6.22).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성향에 따라 종교적 성격의 지역축제에 배정되는 예산이 달라지기도 하여 특정종교집단이 항의방문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종교지도자 면접, 2004.10.30), 종교시설내에서 진행되는 축제기간 중 타 종교집단이 전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종교지향적인 생활을 꾸려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자연숭배, 무속신앙과 제천행사 등과 같은 종교의식을 삶의 일부로 여겨왔다. 국가체제를 갖춘 이후에도 불교를 필두로 하여 유교, 도교, 기독교 등 외래종교를 수용하는 한편으로 천도교나 대종교와 같은 우리 고유의 종교를 발전시키면서 민족문화 발전의 토양으로 삼아왔다(문화관광부, 2003: 363).

우리 나라 사회문화의 현실을 특징적으로 대표하는 다종교 상황 속에서(윤이흠, 1986)⁵⁾, 지역문화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용자들의 종교신념에 따라 지역문화행사를 수용할 것인지 인식간에 갈등을 빚는 현상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예컨대 장승과 같은 전통문화 상징물은 특정 종교이며 우상이라고 하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역축제의 종교성이 현대와 같이 세속화·산업화·도시화된 시대에서는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성향을 많이 내비치는 지역축제를 둘러싸고 종교집단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축제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집단의 종교적 배경과 종교신념에 따른 인식의 차이나 갈등현상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 화합과 종교다원화 시대에 지역축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종교 문화갈등 현상에 대해서 축제 방문객의 종교성향에 따라 지역축제에 대한 수용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서 담당공무원이 지역문화행사 내지 지역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종교신념에 따른 반대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어떻

4) 2004년 10월 조사당시 특정종교 시설지구에서 개최되는 화순 운주축제 조사시 사찰 입구에서 1 Km 떨어진 삼거리에서 인근지역 타종교 신도분들이 나와서 어깨에 띠를 두르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

5) 한문문화권을 대표하는 유교, 인도문화권을 대표하는 불교, 서구와 중동의 유일신관 문화권을 대표하는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들이 공존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 사회의 문화가치체계를 완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한다. 이러한 세계종교 이외에도 무속 내지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종교에서부터 19세기 이후의 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축제 참가자들의 상이한 종교신념에 따른 축제방문동기를 상대적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행사 참가자들의 종교신념에 따라 축제참여 동기가 지역축제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 성격의 축제와 축제참가자의 종교신념 간에 경향성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축제평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다수 있다(김성현, 2005; 김선기, 2003; 김창곤, 2000; 김홍석, 2002; 고경제, 2000; 김병철, 2000; 박종철, 2000; 임상오, 2000; 함석중, 2000; 최홍집, 2000; 강형기, 1999; 고숙희, 1999; 송태갑, 1999; 이원태, 1999; 임재해, 1999; 안경모, 1999; 김병철, 1998; 이강욱, 1998; 문화체육부, 1996; 정강환, 1996; 임학순, 1996 등). 특히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정기적 평가(문화관광부, 2001; 2000; 1999)가 있다. 한편 한국문화와 각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학회와 중국학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고(최소자, 1991; 홍윤식, 1991; 강석호, 1990; 고우진, 1987; 김종서, 1987; 김홍철, 1987; 장일조, 1987; 정태혁, 1987; 조홍윤, 1987; 홍근덕, 1987), 민족성과 한국문화의 관계(배광흠, 1992), 다종교문화와 종교교육(윤이흠, 1986)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나아가 지역축제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임지형, 2005; 김병원, 2004; 이장주, 2003; 정진생·전영호, 2004; 오홍철, 2002; 박미정, 2001 등). 그런데 축제와 종교 문제를 다룬 이희연의 연구(이희연, 2001)는 카톨릭 미사양식의 종교적 의례를 중심으로 순환전 시간 속에 나타난 상징성을 다루었고, 지역축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종교갈등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 다만 장승과 같은 문화적 상징물이나 객관적 사료 뒷받침이 불충분한 무리한 종교인물 현창사업과 같이, 지역문화관광자원개발을 둘러싼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간의 갈등현상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서순복, 2004). 이장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지역축제 방문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화합성, 유희성, 친교성, 탈일상성, 신기성, 문화성으로 망라하였지만(이장주, 2003: 46-51),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개발을 둘러싼 종교갈등에 이은 후속연구로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평가하되 참가자의 축제방문동기에 관해 종교신념과 관련변수(종교생활기간·종교의식경험·종교직분담당)를 중심으로 조사평가하였다.

II. 지역문화행사의 종교성에 관한 논의와 조사설계

1. 지역문화행사의 종교성

고대로부터 내려져 오는 축제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한 축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 마야인의 신년의식, 잉카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페루 쿠스코에서 매년 6월에 벌어지는 태양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축(祝)은 문자 그대로 제사 때 주문을 외우는 기호이며, 제(祭)는 고기를 차려놓고 신에게 비는 행위의 부호글자이다. 축제는 신성성과 함께 유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대생활에서 축제는 더 이상 종교적 신성성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않게 되었다.

축제는 종교적 상징성과 유희성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류정아, 2003: 42-45; 이장주, 2003). 호이징거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에 축제이며 이 축제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하였다(Hoizingha, 1955). 또 일상적인 생의 흐름 속에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 일상생활을 돌아본다면 외형적인 삶은 변하지 않더라도 삶의 내용이나 개인들간의 관계, 사회구조적 차원 등 본질적인 근원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일상적인 삶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신성성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약화된 대신 축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명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독교 사회에서 사순절과 대조되는 사육제(카니발)는 사순절이라는 금욕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는 향연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유사종교성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류정아, 2003: 47).

우리나라 축제의 발생시기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노래와 춤을 비롯해 예술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 축제라고 한다면, 민속예술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삼국지(三國志) 위지(魏誌) 동이전(東夷傳)에 나오는 제천의례가 우리 축제의 시원이 될 수 있다. 부여의 1월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 예의 무천과 마한의 농공시필기인 5월과 10월의 제천의례는 모두 종합예술의 성격을 띤 한국적 축제였다. 우리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허왕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던 수로왕을 사모해서 진행된 ‘희락사모지사’(戲樂思慕之事)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여자들의 가배일(嘉俳日)⁶⁾의 놀이가 우리 축제의 원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문화

6) 유리왕 9년 왕이 6부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가르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모여 늦게까지 길쌈을 하고 8월 15일 그 공(功)의 다소를 살펴, 진 편에서는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모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체육부 1996: 21-24).

현대사회에서 축제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관광과 여가의 대상으로 연희되고 있다.7)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발전잠재력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이미지와 정체성(regional festival identity)을 제고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편익을 산출하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가시적이며 공중지향적인(public oriented) 활동이다(장순희, 2002: 277, 296).

2. 조사대상 사례의 개요와 선정 배경

갈수록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문화마인드와 문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지역문화발굴과 관광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견주어볼 때, 민주화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신장된 권리의식으로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현대와 같은 다종교 다문화 상황에서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계통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갈등현상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이 지역문화행사와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식간의 갈등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 전남지역 축제의 소재별 분류

소재	명칭	사례 수
소재	지형 지물 향일암 일출제(여수), 검은모래 눈뜨는 날(여수), 지리산 약수제(구례), 땅끝해맞이축제(해남), 영등제(진도) , 게르마눔 개펄축제(신안), 모래체험 축제(신안)	7
	식물 유달산 개나리축제(목포), 영취산 진달래축제(여수), 매화축제(광양), 산수유축제(구례), 지리산 피아골 단풍제(구례), 제암산 철축제(장흥), 천관산 억새제(장흥), 흑석산 철쭉제(해남), 백양 단풍축제(장성), 연꽃 대축제(무안)	10
	동물 나비축제(함평)	1
역사	진남제(여수), 낙안민속문화축제(순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보성), 운주대축제(화순) , 청자문화재(강진), 왕인문화축제(영암), 흥길동축제(장성), 장보고축제(완도)	8
특산물	도자기축제(목포), 배축제(나주), 숯불구이축제(광양), 전어축제(광양), 죽향축제(담양), 다향제(보성),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영광)	7

자료 : 전남도청 내부자료, 2004

7) 현재 베니스 카니발은 종교적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일종의 문화관광축제로 성격이 완전히 변형되어 존재하지만, 축제 개최시기만은 사육제 시기로 고정되어 있다(류정아, 2003: 49).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4개 지역문화축제 중에서 종교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한 축제를 대상으로 종교성향에 따른 축제의 참여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행사를 유교관련 축제(지리산 남악제), 무속·전설·설화관련 축제(진도영등제), 불교와 연관성이 있는 자연축제(무안백련축제), 불교관련 축제(화순 운주축제)로 유형화하여 종교갈등 경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4개의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리산 남악제에 대해서 살펴보자.⁸⁾ 구례에 살았던 지역민들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하늘과 산에 제사를 올리고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하였는데, 신라시대부터 매년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종사의 제례를 받들어 오다가 조선시대부터는 노고단 남쪽 단을 세우고 제례를 지냈다. 그 후 한말 외세에 의하여 1908년 폐사되었다가 광복 후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제사를 올렸으며 1969년 현재의 터에 남악사를 건립하고 매년 곡우절을 맞이하여 ‘약수제’로 진행하다가, 2000년부터 지리산 남악제라 개칭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행해가고 있다. 유림들이 제례(남악제례악연주, 남악제례, 제례전기념행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유교관련 행사 축제로 선정하였다.

진도 영등축제는 2004년 들어 제27회를 맞는 축제로서 2004.5.5-5.7(3일간) 진도에서 ‘신비 체험, 그곳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렸다. 진도 영등축제는 뽕할머니의 전설이 남아있는 회동마을과 모도섬 사이의 바다가 매년 음력 3월초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줄면서 물위로 드러나 신비의 바닷길을 이룬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다 갈림현상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며, 여러 가지 해산물을 주우면서 바닷길도 가로질러 걸어 볼 수 있다. 뽕할머니의 전설과 진도 셋김굿이 시연되는 점에서 전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무속관련 성격의 축제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무안백련대축제가 개최되는 회산백련지는 설화를 간직한 세계 최대의 백련서식지로서 10여종에 달하는 가시연꽃 군락지와 30여종에 달하는 수생 식물들이 서식하는 귀중한 생태자원이다. 2004년에는 ‘생명의 꽃, 평화의 빛이여’라는 주제로 제8회 축제가 8월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축제의 주된 소재인 연꽃을 생각하면 특정 종교(불교)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특정종교 신자가 관광객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종교별 축제참여 동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화순 운주축제는 누워있는 불상(이른바 와불)이 일어서는 날이면 천지가 개벽하고 민중의 세상이 된다는 전설을 간직한 사찰(운주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하고, 지역민의 삶의 내력과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양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4년 들어 9번째를 맞는 화순운주문화축제가 “아직

8) http://www.gurye.go.kr/culture/tour_festival/fe_namak2004_02.html

못다한 이야기, 끝내 이를 꿈”이라는 주제로 10월 말에 열렸다.9) 운주축제는 불교시설 내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Ⅲ. 지역축제와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각 사례분석

1.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은 연구자의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유교·불교·무속 등 종교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곳의 지역축제(진도 영등제, 지리산 남악제, 무안 백련대축제, 화순 운주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면접을 활용하였다.

지역축제의 참가동기는 종교성 이외에도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 제공, 가족·친지간의 화합 도모, 다른 사람의 권유, 여유시간의 소일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종교신념의 개념은 특정 종교의 신앙, 지식, 확신 정도를 가리킬 수 있는 것으로서 엄밀한 신념체계라기보다는 일용 종교적 정체성(identity)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앙생활의 연한, 직분 담당여부 그리고 세례(영세, 수계)와 같은 종교의식 경험여부와 같은 대용변수(proxy variable)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Ver. 10.0을 활용하여 종교별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해서, 종교신념에 의한 참여동기를 포함한 지역문화행사 관련요인들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종교유형별로 유교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전남 구례의 지리산 남악제(4.17-4.25)에서 17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하였고, 무속·설화를 매개로 하는 전통문화 해당 사례로서 진도의 영등축제(5.5-5.7)에서 248명을, 불교의 상징적 꽃으로 인식되는 연꽃을 소재로 한 무안 백련대축제(8.14-8.22)에서는 100명을, 불교사찰 경내에서 개최되는 화순 운주축제(10.29-10.31)에서는 16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응답자 686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는 52.8%, 여자는 47.2%를 차지하였으며¹⁰⁾, 연령별로는 20대는 32.1%, 30대는 25.0%, 40대는 25.6%, 50대는 13.6%, 60대 이상은 3.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종교별 응답 분포를 보면 기독교(개신교) 20.1%, 기독교(천주교) 16.5%, 원불교 3.4%, 불교 23.0%, 그리고 무종교에 해당할 수 있는 기타 36.9%로 조사되었고, 종교생활기간별로는 2

9) http://www.unju.com/bbs/view.php?id=data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10) 총 응답자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 합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년 미만 30.7%, 2-5년 19.0%, 5-10년 22.9%, 10-20년 16.1%, 20년 이상 11.3%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세례·영세·수계와 같은 종교의식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유효응답자 중에서 36.5%에 이르고, 교회·성당·사찰과 같은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유효응답자 중 20.8%에 불과하였다.

<표 2>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표본의 수(명)	표본의 비율(%)
축제 유형	지리산 남악축제(구례)	176	25.5
	진도 영등제	248	35.9
	무안 백련축제	100	14.5
	화순 운주축제	167	24.2
성별	남자	364	52.8
	여자	325	47.2
연령	20대(이하 포함)	222	32.1
	30대	173	25.0
	40대	177	25.6
	50대	94	13.6
	60대 이상	25	3.6
종교	기독교(개신교)	136	20.1
	기독교(천주교)	112	16.5
	원불교	23	3.4
	불교	156	23.0
	기타	250	36.9
종교생활 기간	2년 미만	166	30.7
	2년 이상-5년 미만	103	19.0
	5년 이상-10년 미만	124	22.9
	10년 이상-20년 미만	87	16.1
	20년 이상	61	11.3
종교의식 경험 여부 (세례, 영세, 수계)	받았다	235	36.5
	안 받았다	409	63.5
종교기관에서 직분 담당 여부	있다	134	20.8
	없다	511	79.2

주 : 결측치(missing value)는 표본 수와 비율에서 제외하고 계산함(이하 동일)

2. 조사대상자의 관광행태적 특성

설문 응답자들이 보이는 관광행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축제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지

역문화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참여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도 32.5%에 이르기도 하였다. 응답자 중 축제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 전체 유효응답자 중 48.8%에 이르고, 나머지는 2번 이상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축제를 알게 된 매체별 경로를 보면 주위 사람들의 구전광고 효과에 의하여 가장 많이 관련 정보를 접하였고(33.3%),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16.4%), 현수막(플래카드)을 통해서(15.1%)라고 조사되었다. 혼자서 축제에 온 사람은 전체 유효응답자 중 3.8%에 불과하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들도 많지만,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다시 오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에 불과하고 유효응답자의 61.0%는 다시 오겠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축제의 유효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표본의 관광행태적 특성

변수	구분	표본의 수(명)	표본의 비율(%)
행사 참여 정도	적극 참여	132	19.1
	조금 참여	334	48.4
	전혀 참여 안함	224	32.5
축제 방문횟수	처음(1회)	337	48.8
	2번째	153	22.2
	3번 이상	200	39.0
축제정보 획득 경로	TV, 라디오	112	16.4
	신문, 잡지	75	11.0
	현수막(플래카드)	103	15.1
	안내책자, 포스터	51	7.5
	주변사람을 통해	207	30.3
	인터넷(PC통신)	68	9.9
	여행사	8	1.2
	기타	60	8.8
동반자	혼자서	26	3.8
	가족과 함께	315	45.7
	친구, 애인과 함께	184	26.7
	친목단체에서	133	19.3
	여행사 단체관광	11	1.6
	기타	21	3.0
축제 재참가 의사 여부	다시 오고 싶다	420	61.0
	다시 오지 않겠다	55	8.0
	잘 모르겠다	214	31.1

3. 지역축제 참가자의 종교신념에 따른 축제 방문동기와 종교분포의 분석

<표 4> 지역축제 유형별 참가자의 종교 분포의 관계

구분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타	합계
지리산 남악제	30명 (17.0%)	29명 (16.5%)	13명 (7.4%)	42명 (23.9%)	62명 (35.2%)	176명 (100%)
진도 영등제	51명 (21.0%)	50명 (20.6%)	4명 (1.6%)	54명 (22.2%)	84명 (34.6%)	243명 (100%)
무안 백련축제	21명 (22.8%)	15명 (16.3%)	4명 (4.3%)	24명 (26.1%)	28명 (30.4%)	92명 (100%)
화순 운주축제	34명 (20.5%)	18명 (10.8)	2명 (1.7%)	36명 (21.7%)	76명 (45.8%)	166명 (100%)
합계	136명	112명	23명	156명	250명	677명

* 카이제곱 = 25.65

위 <표 4>에서 축제유형별로 응답자의 종교분포 상황을 보면, 지리산 남악제의 경우 유교나 무종교를 포함한 기타가 전체 유효응답자를 포함하여 35.2%로 가장 많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 응답자가 33.5%, 그리고 불교 응답자는 23.9%에 이른다. 조사 대상축제 중 가장 불교적 성격이 강한 화순 운주축제의 경우에도 종교적 무관심층 내지 무종교 응답자 집단¹¹⁾이 45.8%로 가장 많았고, 불교를 종교로 가진 응답자는 21.7%로 차순위로 많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축제개최도시 인근 지역에서 주로 찾아온다. 예컨대 2000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방문객의 경우(김춘식, 2002 재인용; 이희재 외, 2000: 140), 안동 시민 68.4%를 포함하여 방문객의 95%가 대구·경북지역 사람이고 5%만 타 시도에서 구경하러 왔다.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역시 개최지역의 주변에서 주로 방문할 것이고 유추할 수 있다. 아래 <표 5>를 보면 전남지역의 종교인구 분포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가 없다는 주민비율이 종교가 있다는 사람보다 많고, 다만 이런 경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불교인구보다 높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 인구비율은 불교인구 비율보다 더 높다. 한편 본 설문조사 응답자중 종교적 무관심 내지 무종교집단이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점은 <표 5>의 전남 종교인구비율 분포와 비슷하나, 신앙종교가 불교인 응답자가 일반 종교인구 분포비율과 비교해볼 때 개신교 응답자 비율보다 근소한 차이로 약간 더 높게 조사되었으나,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 응답자는 불교 응답자보다 많은 것은 일반 인구분포 경향과 비슷하였다.

다만 불교 사찰 경내에서 진행되는 불교적 경향의 화순 운주축제에서 불교 성향의 응답자는

11) 설문 항목에서는 '기타 응답'으로 표시함

21.7%밖에 안 되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기독교(31.3%)보다도 적었다. 불교 응답자의 비율이 화순 운주축제보다 불교적 성격이 약한 무안 백련축제의 경우(26.1%)가 화순 운주축제(21.7%)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진도영등제의 경우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의 분포가 대동소이하였다.

<표 5> 전남지역 인구의 종교별 분포 상황

(단위 : 명/%)

구분	계	종교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종교	종교없음
전남 (1995년)	2,066,109명 (100%)	845,936명 (40.9%)	281,827명 (33.3%)	422,237명 (49.9%)	88,465명 (10.5%)	37,750명 (4.5%)	7,454명 (0.9%)	8,203명 (1.0%)	1,220,172 (59.1%)
구례	34,233명 (100%)	12,645명 (36.9%)	6,462명 (51.1%)	4,291명 (33.9%)	506명 (4.0%)	994명 (7.9%)	240명 (1.9%)	152명 (1.2%)	21,588명 (63.1%)
화순	63,772명 (100%)	22,169명 (34.8%)	10,409명 (46.9%)	8,849명 (39.9%)	1,836명 (8.3%)	578명 (2.6%)	71명 (0.3%)	416명 (1.9%)	41,603명 (65.2%)
무안	67,747명 (100%)	30,303명 (44.8%)	7,803명 (25.7%)	16,994명 (56.1%)	4,175명 (13.8%)	727명 (2.4%)	335명 (1.1%)	269명 (0.9%)	37,444명 (54.2%)
진도	42,367명 (100%)	16,345명 (38.6%)	7,377명 (45.1%)	4,314명 (26.4%)	1,232명 (7.5%)	3,159명 (19.3%)	77명 (0.5%)	186명 (1.1%)	26,022명 (61.4%)
전남 (1999년)	100.0%	45.8%	40.6%	40.4%	11.4%	4.2%	2.0%	1.3%	54.2%
전남 (2004년)	100%	52.8%	36.6%	48.9%	9.9%	2.5%	0.9%	1.1%	47.2%

* 기타 종교는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등을 포함

* 종교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년 주기(1985년, 1995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출처: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IN9506&IDTYPE=3&A_LANG=1&FPUB=3&SELITEM=시점:1995를 토대로 보완함

불교적 경향의 지역축제라고 하여 불교신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그만큼 오늘날 지역축제는 그 소재가 내용이 종교적 성향을 강하게 갖는다 하더라도 축제참가자들은 종교적 편향을 보이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축제의 제의성보다는 유희성이 그만큼 많이 작용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격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는 본래의 종교성(제의성)은 거의 상실하고, 유희성(연희성)에 몰입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속화 등이 축제의 종교성의 희석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음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 참가동기의 종교관련요인별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는 축제유형과 종교에 따른 교차분석만 해당하고, 나머지 중

교생활기간이나 종교의식 경험여부 그리고 종교기관에서의 직분담당 여부에 의해서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축제참가동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종교신념에 따라 지역축제의 참가동기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적 성격의 축제와 축제참가자의 종교분포간에 일관된 경향성이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표 6〉 축제 참가동기의 종교 관련 요인별 교차분석 유의확률

구분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p값)
축제 참가동기 *축제유형	68.310	.000
축제 참가동기 *종교	51.082	.005
축제 참가동기 *신앙생활기간	37.464	.109
축제 참가동기 *세례(영세, 수계) 여부	5.154	.641
축제 참가동기 *종교기관에서의 직분 여부	8.323	.305

그리고 <표 6>에서 보았듯이 축제유형에 따라 참가자들의 축제 참가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각 지역축제마다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 무속·설화, 유교 등에 관심이 있어서 축제에 참가한 비율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장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운주축제의 경우에도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사람은 전체 유효응답자의 1.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축제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진도 영등축제의 경우 다양한 문화체험(26.2%) > 가족친지 화합(20.1%) > 여유시간 소일(18.4%), 지리산 남악제의 경우 다양한 문화체험(22.7%) > 여유시간 소일(19.9%) > 다른 사람의 권유(14.2%),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14.2%), 무안 백련축제의 경우 가족친지 화합(28.0%) > 여유시간 소일(20.0%) > 지역축제 관심(16.0%), 화순 운주축제의 경우 다양한 문화체험(25.3%) > 여유시간 소일(23.5%) >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16.3%) >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와 가족친지의 화합 그리고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종교적 성격이 강한 축제라 할지라도 그 축제참가들은 축제내용의 종교적 내용을 찾아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요인들, 화합성과 사교성 그리고 유희성이 축제참가의 주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종교적 성격과 연관된 축제라 할지라도 종교적 상징성은 많은 부분 희석 내지 상실되었고, 관광이나 여가향유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축제유형별 축제 참가동기의 분석

구분			축제유형				전체
			진도 영등축제	지리산 남악축제	무안 백련축제	화순 운주축제	
축제 참가 동기	지역축제에 관심	빈도	28	25	16	24	93
		%	11.5%	14.2%	16.0%	14.5%	13.6%
	다양한 문화체험	빈도	64	40	12	42	158
		%	26.2%	22.7%	12.0%	25.3%	23.0%
	자녀교육에 도움	빈도	23	14	5	27	69
		%	9.4%	8.0%	5.0%	16.3%	10.1%
	가족, 친지의 화합	빈도	49	21	28	10	108
		%	20.1%	11.9%	28.0%	6.0%	15.7%
	다른사람의 권유로	빈도	28	25	15	8	76
		%	11.5%	14.2%	15.0%	4.8%	11.1%
	여유시간 소일	빈도	45	35	20	39	139
		%	18.4%	19.9%	20.0%	23.5%	20.3%
	종교(불교, 무속· 유교 등)에 관심	빈도	4	6	3	3	16
		%	1.6%	3.4%	3.0%	1.8%	2.3%
	기타	빈도	3	10	1	13	27
		%	1.2%	5.7%	1.0%	7.8%	3.9%
전체	빈도	244	176	100	166	686	
	%	100.0%	100.0%	100.0%	100.0%	100.0%	

* 카이제곱 = 68.31

현대사회가 복잡화될수록 일상생활에서 무의미를 느끼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통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여가의 증대가 지역축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FREEDOM¹²⁾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고정민, 2002: 1)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축제에도 종교와는 별무관한 문화체험과 가족 화합 그리고 여유시간의 소일을 위해 축제에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2) family(가족과의 유대 강화), recreation(휴식과 오락 선호), experience(체험형 소비의 일반화), education(학습의 기회 증대), dual job(복수직업 보유), out door(야외활동 강화), mania(매니아층 선호)

<표 8> 화순 운주축제 참가동기의 종교유형별 분석

		종교					전체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타		
축제 참가 동기	지역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빈도	4	2		7	11	24
		축제 참가동기의 %	16.7%	8.3%		29.2%	45.8%	100.0%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싶어서	빈도	11	6		4	21	42
		축제 참가동기의 %	26.2%	14.3%		9.5%	50.0%	100.0%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빈도	5	2		8	12	27
		축제 참가동기의 %	18.5%	7.4%		29.6%	44.4%	100.0%
	가족, 친지의 화합을 위해	빈도	1			3	5	9
		축제 참가동기의 %	11.1%			33.3%	55.6%	100.0%
	다른 사람의 권유로	빈도	2	1	1	3	1	8
		축제 참가동기의 %	25.0%	12.5%	12.5%	37.5%	12.5%	100.0%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빈도	7	5	1	7	19	39
		축제 참가동기의 %	17.9%	12.8%	2.6%	17.9%	48.7%	100.0%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빈도		1		2		3
		축제 참가동기의 %		33.3%		66.7%		100.0%
	기타	빈도	4	1		2	6	13
		축제 참가동기의 %	30.8%	7.7%		15.4%	46.2%	100.0%
전체	빈도	34	18	2	36	75	165	
	축제 참가동기의 %	20.6%	10.9%	1.2%	21.8%	45.5%	100.0%	

* 카이제곱 = 29.45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 축제인 화순 운주축제에서도 설문응답자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는 21.8%에 불과하고, 기독교(개신교)가 20.6%, 기독교(천주교)는 10.9%일뿐만 아니라, 전체 유효응답자 165명 중에서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운주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1.8%에 불과하고, 다양한 문화체험(25.5%)과 여유시간 소일(23.6%)을 위해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표 8>에 나타난 행 백분율이 아닌 열 백분율(column percentage)로 보면, 축제참가자가 불교신자 36명 중에서도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축제에 참가한 경우는 5.6%(2명)에 불과하고, 자녀교육 목적(22.2%, 8명) >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19.4%, 7명) 그리고 여유시간 활용(19.4%, 7명)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조사됨으로써, 종교적 상징성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녀교육을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경우(22.2%)는 축제 프로그램 중에 운주사를 소재로 한 백일장이나 그림그리기대회 등이 있어서 그렇게 조

사용답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운주축제에 대해 종교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유의확률(p값)이 0.390으로써 종교에 따라서 축제참가 동기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운주축제 설문응답자 중에서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21명) 중에서도 종교(불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참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38.1%)과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해서(33.3%)라고 응답하여 신앙생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값=0.094). 그리고 세례(영세·수계)와 같은 종교의식 참여경험 유무에 의해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값=0.987)

그런데 불교사찰에서 진행되는 화순 운주축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의 관계를 포함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주목적으로 하였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불교적 색채가 강한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¹³⁾ 특히 석불세우기, 스님초청 발우공양과 예불의식, 탑과 불상에 야간조명,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불교적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해 스님가수가 출연하는 산사콘서트를 개최하고, 노래공연인 포엠콘서트 역시 운주사를 소재로 하는 작품(시, 소설)을 노래로 만들어 공연하였으며, 미술전시회 역시 운주사를 소재로 오랫동안 미술작품을 해오다 운주사 소재의 그림이 국전 특선한 자치단체장(광주 북구청장)의 그림을 운주사내 전시하는 초대 전시행사이었을 정도로, 불교적 상징과 의미를 최대한 프로그램 내용 속에 반영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태도를 조사해보면, 위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라는 종교적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4월 초파일과 같은 불교 축일에 진행되는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순 운주축제가 관광과 여가향유의 대상으로 연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안 백련축제와 관련하여 연꽃의 뿌리는 더러운 진흙탕에 두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의 특성이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같다고 하여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한다.¹⁴⁾ 그런데 2004년 프로그램을 보면 불교적 색깔을 보여주는 내용이 거의 없다.

더구나 2003년 무안 백련축제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해남 대흥사가 공식 후원기관 중의 일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불교 문화행사(육법공양·차시음회 등) 이외에도 목포 극동방송의 기독교 찬양콘서트가 행사장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연꽃이라는 자연식물이 불교를 상징하고, 프로그램 내용 중에 불교관련 행사가 있는

13) http://www.unju.com/bbs/view.php?id=data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14) 연꽃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사랑받는 꽃이다. 송나라때 유학자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나는 연을 사랑하나니 연꽃은 진흙속에서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오염하지 않으며 속이 비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도 없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으며 우뚝 서있는 모습은 멀리서 보아야 참맛을 느끼게 하니 연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라고 애찬하여, 후대 유학자들이 연꽃을 가까이 하였는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생활했던 건축공간에는 연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동 도산서원 앞마당에도 연꽃이 피어있다.

경우가 있었지만 기독교 관련 행사를 수용하는 등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지리산 남악제의 경우 종교적 의미의 행사임에 비해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의미에서의 참여라기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전통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도 하늘과 산에 제사를 올리어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한다는 전통적 의미보다는 관광객의 흥미와 단순한 재미를 위한 볼거리에 치우쳤다. 단적으로 5개 분야 총 37개 프로그램 항목 중에서 마라톤대회 등 제전행사 3종목, 불꽃놀이 등 전야행사 2종목, 농악 등 부대행사 20종목, 농촌체험 등 체험전시판매 행사 9종목인 것에 비해, 제례행사는 남악제제약연주·남악제제·제례전기념행사 3종목에 그치고 있다.¹⁵⁾

이상에서 전남지역축제 중 종교와 연관성이 있는 4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행사와 방문객의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자간에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종교적 성격이 강한 화순 운주축제의 경우 응답자의 종교신념에 따라 축제참가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조사되었지만, 불교 축제인 화순 운주축제에 응답자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는 21.8%이고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가 31.5%였으며, 전체 유효응답자 중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운주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1.8%에 불과하였다. 또한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 관심 때문에 참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신앙생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교의식 참여경험 유무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순 운주축제나 무안 백련축제의 경우 불교를 연상하기 쉬워 불교신자가 방문객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으나, 실제 설문분석결과 불교신자는 전체 방문객의 3% 이하에 불과해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내용상 종교적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객의 축제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축제의 성격은 종교적 상징성은 거의 상실된 관광과 여가향유의 대상인 문화관광축제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화순 운주축제의 경우 축제기간 중 축제 현장 근처에서 타 종교 전도활동을 한다거나,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종교성향에 따라 종교성향이 강한 축제에 대한 예산 배분 비중이 달라져 지역내 불교단체 종교지도자들이 단체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사례와 같은 예외적인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비록 종교적 성격의 지역축제라 할지라도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진도영등제의 경우에 무속행사(씻김굿)가 시연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영등축제와 별도의 기간에 민간영역(기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다른 기간에 개최되고 있고,¹⁶⁾ 무안 백련축제의 경우에도 불교관련

15) http://www.gurye.go.kr/culture/tour_festival/fe_namak2005_01.html

16) 진도영등축제 홈페이지를 보면 ‘축제 Q&A’ 코너에 올라온 ‘영등제가 기독교 행사인가’라는 질문과 관

행사 이외에도 기독교 관련 행사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축제에 있어서 종교신념에 따른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21세기는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문화를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역문화축제행사가 늘고 있다. 그런데 지역문화축제나 이벤트가 종교신념과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다원화 시대 지역축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종교문화갈등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축제 참가자들의 상이한 종교신념에 따른 축제방문동기를 상대적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축제의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종교적 동기에 의한 참가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율이 저조하였으며,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방문객의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만에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축제참가자의 신앙생활 연한, 종교기관내 담당 직분 여부, 세례(영세·수계)와 같은 종교의식 참가 경험 등에 의해서도 유의미한 관계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 중에서 종교적 성향이 강하여 종교간 마찰잠재성이 상대적으로 큰 축제에서도 현재 종교적 의미는 거의 희석되었고, 관광과 여가 향유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문화관광축제로 그 성격이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조사대상사례 중 가장 종교성이 강한 화순 운주축제의 경우 불교사찰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제기본계획에는 사찰·세계문화유산 고인돌·온천 등 지역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주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이미지 제고하고, 축제를 전국화하여 각계각층의 관광객유입으로 관광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표를 잡고 있었다(2002, 화순군 내부자료). 다만 2003년부터 축제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과거 행정기관의 일방적 주도로 소극적 참여에 머물렀던 사찰과 지역주민의 소원한 관계망을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간 갈등, 개발과 보존과의 갈등,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내 잃어버린 공동체 회복에의 꿈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함으로써 종교적 경향은 많이 불식되어 있다.

련하여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의 별도 행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http://seaparting.jindo.go.kr/>)

본 연구를 통해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종교적 성격이 있는 지역축제를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의 종교관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을 우려하여 개최할 수 없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불교 축제가 있듯이 기독교 순교성지순례 축제도 가능하다고 보며, 종교 축제의 경우에도 종교적 갈등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프로그램 상으로 타 종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갈등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다종교 다문화상황에서 지역축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한 무안 백련축제 같은 자연물 축제에서 보듯이 불교와 기독교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열린 자세가 바람직하며, 진도영등축제 사례에서처럼 무속행사가 타종교단체에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바다갈림 현상이 1년에 수차례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방정부 주관 축제와 다른 기간에 민간종교단체가 지방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이 바람직하게 보였다. 또한 본연구의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강릉 단오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축제의 특정 프로그램이 다른 종교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을 경우 축제기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⁷⁾

한편 기독교 관련 지역문화축제가 있었다면 불교관련 문화축제와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 문화축제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연구자의 지역 연고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무작위로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조사대상자의 종교분포가 인구센서스상의 종교분포와 정확한 비례성은 없어서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지역문화행사의 종교신념에 따른 갈등 현상에 대한 시론적 차원의 탐색적 연구로서 지역축제 방문객의 종교신념에 따른 축제방문동기가 상이한 종교성향의 지역축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 조사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석. (1990). 17세기에 있어서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국제문화 교류. 퇴계학보 68.
강형기. (1999). 명확한 축제테마, 주민참여, 지방문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방행정 제552호. 10월호.
고경제. (2000). 강원도 지역축제의 현재와 미래. 강원광장 36. 9/10월호.
고숙희. (1999).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경제적 효과. 한국행정학보 33(2).
고우진. (1987). 한국문화와 불교. 종교연구 3.

17) 강릉 단오제의 경우 최근 ‘LOVE 강릉 기독교협의회’가 시청 앞에서 금식 농성하면서 이슈가 촉발되었다. 동 단체는 10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하였고, 강릉단오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장이 단오제 제례행위의 제주(祭主)가 되는 것을 피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강릉데일리안, 2005.6.22).

- 김병원. (2004). 지역축제의 참여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목포대 대학원 사이버문화관광학 박사학위 논문.
- 김병철. (2000). 지역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강원광장 36. 9/10월호.
- _____. (1998).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 김상일. (2000). 문명충돌론과 단군(I). 기독교사상 504.
- 김선기. (2003).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현. (2005).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중간평가」.
- 김중서 외. (1998). 21세기 종교환경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역할제고 방안. 한국종교학회.
- 김창근. (2000). 문화관광축제 운영의 활성화 연구. 산업연구 제13권.
- 김춘식. (2002).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홍석. (2002). 지방정부의 문화관광분야 경영수익사업의 전개방향.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 김홍철. (1987). 한국문화와 민족종교. 종교연구 3.
- 류정아. (2003). 축제, 그 현대적 의미와 표상. 축제와 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문화연구 01.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
- _____. (2001). 종합평가보고서 2001 문화관광축제.
- _____. (2001). 종교행정편람.
- _____. (2000). 종합평가보고서 2000 문화관광축제.
- _____. (2000). 한국의 종교상황.
- _____. (1999). 종합평가보고서 1999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축제.
- 윌러 하랄트. (2000).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숲.
- 박미정. (2001). 지역축제 방문객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3(1).
- 박종철. (2000). 향토축제와 지역활성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 배광음. (1992). 한국문화와 민족성. 국어교육 79.
- 백승현. (2003). 문화·생명 강조한 강진·무주 대성공, 관광수익 노린 홍어축제 도중하차. 대동문화 2003년 7·8월호.
- 서순복. (2004). 지역문화자원 개발과 지역주민의 종교신념간 갈등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회보 8(2).
- 성준경. (2002). 전남의 불교문화유적 해설. 전라남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자료.
- 송태갑. (1999).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47호.
- 안경모. (199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축제 사례분석. 지방행정 제552호. 10월호.
- 오홍철. (2002). 기장대변 멸치축제 방문동기 분석에 기초한 시장세분화 연구. 관광레저연구 14(2).

- 윤이흠. (1986).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 이강욱. (1998).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이원태. (1999). 지역축제를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전략. 지방자치. 3월호.
- 이장주. (2004).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개발과 검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1).
- _____. (2003). 지역축제 참여동기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2). 전남지역 지역축제와 관광상품화. 전라남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자료.
- 이희연. (2001). 사회적 시간의 기계적 차원과 순환적 차원에 대하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상오. (2000). 한지문화제의 개최현황과 진흥방향. 강원광장 36. 9/10월호.
- 임재해. (1999). 지방문화의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 지방행정 제552호. 10월호.
- 임지형. (2005). 문화관광축제 참가동기에 관한 연구. 세종대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학순. (1996). 지방문화행정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 장순희. (2002). 지역축제의 성공적 집행에 관한 연구. 2002년도 강원행정학회 추계학술 심포지엄.
- 장일조. (1987). 한국문화와 기독교. 종교연구 3.
- 장정룡. (2001). 문화이벤트와 지역활성화전략. 지방행정 제581호. 5월호.
- 장희영. (2005). 지역축제의 방문동기와 사후 이미지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강환. (1996).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 정진생·전영호. (2004). 지역축제 참가자의 방문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6(3).
- 정태혁. (1987). 불교에서 본 현대사회와 인간성 문제. 불교학보 24.
- 정홍익. (2001.6.5). 문화정책에로의 초대. 한국정책학회 뉴스레터 제36호.
- _____. (1996). 지방문화정책의 변화와 진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50회 국가정책세미나.
- _____. (1992). 문화행정연구. 한국행정학보 25(4).
- _____. (1990). 문화행정직 교육제도의 분석과 평가. 행정논총 28(2).
- _____. (1989). 문화행정 연구. 행정논총 27(1).
- 조홍윤. (1987). 한국문화와 민속종교. 종교연구 3.
- 최소자. (1991). 17·18세기 서구문화의 유입에 관한 몇가지 문제. 중국학보.
- 최홍집. (2000). 강원지역 축제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적 육성방안. 강원광장 36. 9/10월호.
- 함석중. (2000). 강릉단오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강원광장 36. 9/10월호.
- 헌팅턴 사무엘.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홍윤식. (1991). 한국불교와 전통문화. 불교학보 28.
- MBC. (2000.8.22). 나는 단군상을 칠거했다. PD수첩.
- Hoizingha, J. (1955). *Homo Ludens*, Boston: Beacon.